

8일 Market Index			
코스피	2561.15	코스닥	743.38
	(-3.48)		(+9.86)
금리 (한국은행)	2.889	환율 (원/달러)	1397.00
	(-0.033)		(+0.40)

‘새것 아닌 새것 같은’ 혁신… 식품업계, 스피노프 바람

〈오리지널 작품의 변이판〉

식품업계 생존전략

식품업계가 불황 타파를 위해 다양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인구구조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한정된 내수시장과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몸집을 빠르게 불리고 있는 것.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로봇 등 기술을 식품 생산과정에 투입해 비용 절감에 나서기도 했다. 메트로경제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식품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격일로 발행하는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上〉유연성 강화

농심 ‘깡’ 시리즈 품질 대란 오리온, 꼬북칩 품목 확대 등 스피노프로 기존 상품 확장 제과, 신뢰도 기반 성장 모색

식품업계는 불황기를 슬기롭게 견뎌내기 위해 상품과 브랜드를 유연하게 확장하는 ‘스핀 오프(spin-off)’ 전략을 펼치고 있다.

스핀오프는 흔히 대중문화에서 쓰이는 개념으로, 특정 부분을 독립된 내용으로 분리 및 확장해 또 다른 콘텐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작품의 캐릭터나 세계관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특징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스피노프가



尹대통령,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및 안보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대중문화를 넘어 유통업계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기존 제품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맛이나 모양, 식감 등에 변화를 주는 식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심의 ‘깡’ 시리즈가 있다. 농심이 지난해 ‘새우깡’의 후속작으로 선보인 ‘떡볶이깡’은 출시 1주일만에 100만봉 넘게 팔렸으며 품질 대란을 일으키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오리온은 지난 9월 ‘꼬북칩 카라멜 팝콘맛’을 출시했다. 2017년 첫선을 보인 꼬북칩은 미국 등 전 세계 23개국에서 판매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신제품으로 선보인 꼬북칩 카라멜 팝콘맛은 겹당 두께를 세밀하게

조정해 캐러멜로 감싸 기존 폭신한 팝콘에서 느낄 수 없는 빠삭한 식감을 완성했다.

1982년 출시한 비스킷 ‘다이제’도 건강한 맛을 중요시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변화를 줬다. 오리온은 백미 대비 칼슘은 8배, 식이섬유는 4배 풍부한 오토를 넣고 통밀을 더한 ‘오토 다이제’를 선보였다.

오리온만의 그래놀라 제조 기술력으로 카페나 베이커리에서 즐길 수 있는 수제 쿠키의 맛과 식감을 구현해 맛과 영양을 따지는 2030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과업계에서 스피노프 상품 출시가 활발한 이유는 제과사업의 성장성 둔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구조가 변하고 보다 건강한 식생활을 선호하면서 제과류가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수 제과 제품을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을 선보일 경우, 해당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국내 14세 미만 인구는 2020년 631만명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2070년에는 282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년 인구가 감소하면 제과 시장 규모는 지금보다 더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범용인공지능 시대, 공존법 모색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오는 11월 20일(수) 오후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인공지능(AI)이 가속화하면서 인간을 뛰어넘는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과 공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AI를 필두로 확장현실(XR),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혁명을 이루는 기술들이 융합되며 초연결사회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거주환경과 노동주체는 물론 전반적인 사회구조가 변화하며 미래 생태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초현실사회로: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AGI 시대의 공존법을 모색하고 산업과 기업에 일으킬 변화상을 공유합니다.

- ◆ 주제: 초현실사회로: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 ◆ 일시: 2024년 11월 20일 오후 2시~5시
- ◆ 장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주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등록: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www.metroseoul.co.kr)
- ◆ 문의: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기조강연:
유성준 세종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원장(컴퓨터공학과 교수)
-인공지능의 과거, 현재, 미래-우리의 대응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 강연:
김현배 딥파인 대표
-인공지능과의 결합으로 바라보는 XR시장 전망
하현석 큐빅 CTO
-AI 혁신을 위한 미래 데이터-합성데이터
이근우 화우 법무법인 A센터장(변호사)
-AI와 살아가야 하는 시대-활용과 노동시장의 전망

metro

美 빅테크 혁신 빨라진다… 韓, 규제개혁·투자확대 필요

트럼프, AI혁신 저해 정책 비판 美빅테크 산업 규제완화 기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규제 완화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의 AI 정책 기조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미국 AI 기업들의 혁신 가속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발빠

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핵심은 과감한 규제 개혁과 투자 확대, 글로벌 협력 강화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혁신’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말 발표된 ‘AI 행정명령’을 ‘혁신을 저해하

는 불법 검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취임 즉시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AI 기술 개발·이용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로,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요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반독점법 소송의 접근 방식을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미 의회에서 추진되던 빅테크 규제법안 6개 중 5개가 이미 폐기된 상황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남은 1개 법안의 부활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졌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일부 반독점 정책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분할 문제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수장들

도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 “미국의 미래가 다시 밝아졌다”고 기대감을 표했으며,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역시 “이보다 더 큰 기회를 가진 나라는 없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언급했다. 이외에도 샘 올트먼 오픈 AI CEO, 팀 쿡 애플 CEO 등도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

부의 AI 규제 완화가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며 민·관이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삼성KPMG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자국 기업 중심으로 미국 AI 산업 재편을 추진할 경우 한국 기업에 AI 서비스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AI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라며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투자 확대, 기업은 기술 혁신과 글로벌 협력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혜민 기자 hyem@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민주당, 국회 ‘특별감찰관’ 의총 예고에 “특검법 수용이 우선” /사진 뉴시스
- ▲ 트럼프 귀환에 북미대화 시간문제… 고민 깊어지는 한국

- ▲ 여, 野 장외집회에 “이재명 구하기 세 물이… 무죄로 바꾸려 무력 시위”
- ▲ 서울 압구정동 재건축 조합 설립 잇따르자… 인근 신고가 ‘속출’



- ▲ 오세훈, ‘방산수출’ 국회 동의 추진에 “민주당 입법독재, 도 넘어” /사진 뉴시스
- ▲ 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 무혐의’ 재검토